

새해를 장식하는 시사용어사전

만년 스테디셀러이자 소리 없는 베스트셀러!

글_ 백원근(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에서 시사용어사전은 출판 분야로서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해의 아라비아 숫자를 커다랗게 박은 용어사전류가 수첩, 캘린더, 연하장 소프트웨어, 신년 운수 책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계절상품으로 서점 한권을 차지한다. 과거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동아전과, 표준전과보다 2배 가까이 두꺼운(1,300~1,700페이지) 이런 '시사백과' 사전들이 도합 100만 부 가까이 팔리는 것을 보면, 급변하는 세상사를 인터넷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으로 파악하려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전류가 아니더라도 키워드로 읽는 책들이 범람하는 것은 정보홍수 시대와 검색형 독서수요가 빚어낸 출판시장의 조류라 하겠다.

2006년판의 경우 2005년 11월 4일을 기해 주요 시사용어사전들이 일제히 서점가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출판사가 달라도 정기간행물 성격의 출판물 상당수가 유통과 판매의 효율성을 위해 발매시점을 사전에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 용어사전의 대표 주자로는 아사히신문사가 발행하는 《아사히 현대용어지예知惠藏 2006》(약칭 '지예조'), 슈에이사集英社の 《imidas 최신 키워드 사전 2006》(약칭 '이미다스'), 지유코쿠민사自由國民社の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2006년판》 등이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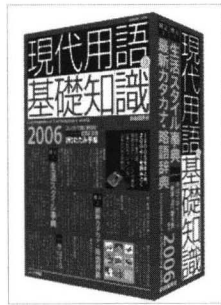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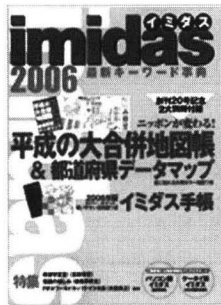
먼저 《지예조》의 경우 9부문 129분야에 걸쳐 약 4만 개 용어를 골라 카테고리별로 실었는데 검색이 매우 편리하다. 특정 용어의 설명문 중에 다른 용어가 등장할 경우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한 것은 이 사전만의 특징점이다. 아울러 화제가 된 용어에 대해서는 간략한 칼럼을 붙여 읽는 재미를 고려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갱신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2006년판에는 휴대형 별책 부록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합병[2006년 3월까지 전국 3232개 시정촌市町村이 1822개로 광역화되어 합병됨]에 따라 지역정보를 망라한 '찾아가고 싶은 역사, 축제, 자연 정보 일본지도' 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정보를 담은

실용적인 수첩이다. 50부 이상 주문을 할 경우 무료로 수첩 표지에 증정자 이름을 인쇄해 준다.

《이미다스》는 '찾고 읽고 보고 즐기는 최신 키워드 사전'을 내걸고 일반 용어 외에도 UN 개혁, 대립하는 일본 국경, 중국 경제 실상, 희망학希望學 선언!, 만담漫語(라쿠고)의 재미 등 일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국제 현안부터 문화, 스포츠까지 13개의 특집으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148분야에 걸친 해설 항목은 1만 7,000개이지만, 영어 약어 및 카타카나 1만 개, 영어 표기 1만 5,000개, 분야별 관련 도서 소개 400종 등이 있어 종합사전 기능을 겸한다. 또한 종이사전을 구입한 독자에게는 인터넷과 휴대폰을 무료 이용(휴대폰은 2개월)하도록 하여 갱신되는 용어를 서비스 해준다. 부록으로는 전국 정보지도, 벽에 붙이는 컬러판 일본 및 세계전도, 수첩을 제공한다.

'지텐辭典이자 지텐事典이며 지텐時典'임을 표방하는 《현대용어의 기초지식》은 발행 58주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2006년판에는 283개 분야 3만 5,000개의 용어를 수록하고 기존의 부록을 합본시켜 변신을 꾀하며 '올인원all in one'의 최강 사전이 탄생했다고 홍보했다. 국제정세,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 각 분야별 최신용어에 더해 특집으로는 '자신과 일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신斷분류기준, 신지표'와 '카탈로페디아 - 보면 아는 용어집'이 실렸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용어집, 최신 카타카나 약어사전, 신종 유행어와 젊은이들의 속어까지 망라했다. 의미나 뉘앙스가 바뀐 용어를 해설한 '재정의어再定義語' 같은 부분도 눈에 띈다. 이 사전의 경우 보급판에 해당하는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학습판 2006》을 자매판으로 발행해 독자층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책을 간결하고 보다 알기 쉽게 정리했을 뿐 아니라 별도의 특집과 권말 부록으로 차별화를 기했다. 휴대폰 서비스도 하는데 월정액 105엔이면 '모바일 현대용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시사용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현대용어의 기초지식》을 발행하는 지유코쿠민사가 주관하는 유



일본의 대표적인 용어사전들

행어 대상이다. 1984년에 시작된 이 상은 한 해 동안 주목받은 말(용어) 가운데 기발한 표현이나 낱안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신조어와 유행어를 동 사전의 독자들에게 응답받아 사전의 편집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004년에는 '겨울연가'(일본식 약어인 '후유소녀')가 톱10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구랍 12월 1일에 개최된 2005년 '신조어 유행어 대상新語?流行語大賞'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의 자민당 압승 드라마를 상징하는 '고이즈미 극장'(자민당 간사장이 했던 말)이 톱10 중 대상을 받았다. 이 출판사의 경우 출판과 이벤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상승효과를 꾀하는 점이 시사적이다.

자유코쿠민샤의 나가오키 류지(長沖龍二) 편집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해서 상세한 정황을 물었더니, 주요 독자층은 30~50대 남성 샐러리맨들이며 학생들이 그 다음 그룹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주요 3사의 용어사전은 각각 20만 부 안팎이 판매된다. 대체로 연말 연시에 절반 정도, 나머지는 신학기 등에 연중 수요가 있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현대용어의 기초지식》이 무려 70만 부까지 판매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한 적도 있지만,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부수가 급감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판에서 수정되는 분량은 전체의 1/3 정도인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과 쇄신을 거듭해 꾸준히 콘텐츠를 보강한다.

새해가 되면 새 달력이 필요하듯 새로운 용어와 지식 습득을 위해 독자들이 꾸준히 찾는 시사용어 사전들. 종이책과 CD-ROM, 인터넷, 휴대폰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 형태로 원소스 멀티유스 하며 '세상을 읽는 시사백과' 기능을 하는 만년 스테디셀러이자 소리 없는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아 독자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다. **■**



1



2



3

1,2 자유코쿠민샤가 운영하는 인터넷판 용어사전 사이트와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마케팅을 위한 서점 홍보물(POP) 매뉴 화면
3 '신조어 유행어 대상'의 시상식 장면